

농식품부-식약처, AI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안내

-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하되 포장지에는 특별방역기간에는 방사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
- 농식품부는 생산자들에게 안내, 소비자들에게 홍보, 식약처는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)와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조류인플루엔자(AI) 발생에 대비한 특별방역기간 중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.

그간 매년 비슷한 기간(10월~이듬해 2월까지)에 AI 특별방역기간이 운영되고 있으나,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 생산자의 경우 국가 방역정책에 따라 미방사하였음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생산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.

<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 >

구분	1번	2번	3번	4번
사육환경	방사 사육	축사내 평사	개선된 케이지 (0.075㎡/마리)	기존 케이지 (0.05㎡/마리)

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육환경번호 표시 개선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, 합의된 개선안이 도출되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였다.

주요 내용은 ▲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▲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표시* ▲추가 표시를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며,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협업을 통해 개선내용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,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, 소비자 오인 구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할 계획이다.

* (예시)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등

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 등 현장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달걀 사육환경번호 표시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호동 (043-719-2191)
		담당자	사무관	박진아 (043-719-2188)
	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	책임자	팀 장	전익성 (044-201-2371)
		담당자	사무관	도재규 (044-201-2346)

